

16世紀宗教改革以後의 諸頌歌에對한研究

김영미*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II. 본 론

1. 종교개혁 이후의 세계 종교음악사
 - (1) 독일 찬송가
 - (2) 영국 찬송가
 - (3) 스위스 찬송가
 - (4) 네덜란드 찬송가
 - (5) 미국 찬송가
 - (6) 일본 및 중국 찬송가
2. 한국교회 음악사
 - (1) 기독교 전래와 그 배경
 - (2) 초창기 찬송가
 - (3) 일제시대의 찬송가
 - (4) 해방후의 찬송가
 - (5) 한국 찬송가의 문제점

III.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세계 여러 나라 교회음악의 시대적 구분을 통해 찬송가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각국의 교회음악이 우리민족에게 복음과 함께 어떠한 경로와

* 교수(종교음악과)

형태로 전래됐는지 연구하므로써 첫째는 목회자나 성가대원, 평신도 그밖에 종교음악 학도들에게 교회음악의 뿌리를 좀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심도있게 이해시키고자 하며 둘째는 1세기의 짧은 역사지만 깊은 신앙심으로 팔복할 만한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음악에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생활과 정서, 우리의 신앙적 체험에 맞는 교회음악, 찬송가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둔다.

2. 연구 범위

기독교 음악은 카톨릭 음악과 프로테스탄트음악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예배용 음악과 연주용 음악, 또는 민중적 음악과 전문적 음악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분류법에는 각각의 타당성이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의 범위로 분류한다. 첫째는 시대별 분류로 고대 이후로 존재해 온 유구한 종교음악 역사중 종교개혁 당시부터와 그 이후 현대까지, 둘째는 형식적 분류로 여러종류의 교회음악이 많으나 그중 회중 찬송가와 성가의 변천 과정이 대상이며, 세번째는 나라별 분류로 세계 여러나라중 유럽, 일본 빛 중국 그리고 한국이 그 대상이 된다.

3. 연구 방법

문헌자료의 연구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찬송가가 시대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 발전되는지 연대별로 비교, 분석, 설명하는 방법으로 서술해 가고자 하며, 또 앞서 서술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여러종류의 찬송가들이 한국교회 음악에는 어떤 형태로 전래되고 발달되었는지 그 변천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려 한다. 이어 결론에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문제점을 제시 목적한 결과에 이르게 한다.

II. 본 론

1. 종교개혁 이후의 세계 종교음악사

카톨릭에서 분리된 신교회운동이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 유럽에 퍼져 나갔지만, 회중찬송이 일정한 어떤 조직이나 명령계통에 의해 보급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나라마다 각기 자국 지도자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공통된 것은 일반 회중이 예배에서 찬송한다는 것 뿐이다. 분리이전 카톨릭 교회에서는 회중에게 '래시킨 일이 없어서 회중이 부를 만한 노래가 없었으므로 회중 찬송은 회중을 위하여 새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개혁 당시인 1517년대에는 아무런 찬송책이 없었고, 1522년대에 비로소 처음으로 찬송가가 발행되었는데 그 수는 겨우 8편이었다.¹⁾ “내주는 강한성”이 처음 인쇄된 것은 1529년으로서 그 해에 출판된 찬송가에 실려있다.²⁾ 이러한 것은 당시에 회중을 위한 찬송가가 만들어졌다는 논증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찬송가를 만드는 움직임들은 독일뿐 아니라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 퍼져나갔고 각 나라마다 자기나라 실정에 맞는 시와 곡조를 결부시켜 예배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부터 17세기 말 경건주의 시대까지는 독일 찬송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18세기부터는 독일 찬송가의 창작이 뜹해져 침체기로 접어든 반면 영어권 찬송가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세계 여러나라의 찬송가는 각각 다르며 같은 신교회라도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전혀 다른 찬송을 부르고 있다. 다만, 한국만이 미국의 찬송가 일부를 전승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 당시와 그 이후, 회중 찬송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형태를 설명코자 하므로 역사적 논증이나 기록보다는, 각 나라에서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설명하려 한다.

(1) 독일 찬송가

현대 찬송가 학자들에 의하면 독일 찬송가는 약 10만편 정도에 이른다고 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약 1천편의 찬송가가 불후의 고전 찬송가라고 한다. 이렇게 양적인 면에서도 풍부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했던 독일 찬송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비롯하여 영국과 미국 찬송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존 줄리안(John Julian)³⁾은 그의 저서에서 독일 찬송가의 발달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

년 도	시 대	특 징
1 8~16세기	중세기	라틴찬송을 기초로 한 시기
2 1520~1648	종교개혁시대부터 30년 전쟁말기	루터이후 독일 코랄 황금기
3 1648~1680	경건주의시대	Paul Gerhard→Spener개혁
4 1680~1757	경건주의, 모라비아시대	Spener~Gellert시대
5 1757~1817	찬송가 개혁시대	계몽주의사상 영향
6 1817~현재	근대복음주의시대	

1) T. M. McNair, op. cit., p. 39.

2) Idem, 「찬송가풀어」, p. 42.

3) John Julian Dictionary of Hymnology, Vol. I, pp. 412~468.

<표 1>에서의 시대분류 중 본 논문에서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서술하였으며, 종교개혁 이후부터 30년전쟁 말기는 편의상 좀더 세밀하게 분류하였다.

① 15세기 독일 찬송가와 루터

1517년 10월 31일에 마루틴 루터(M. Luther : 1483 – 1546)가 비텐베르크시에 있는 교회 정문에 교황청에 항의하는 95개조로 된 항의문을 붙인 것은 종교개혁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라틴어로 된 찬송가가 아니라 독일어로 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독일 찬송가의 시작이 다른 나라의 찬송가와 다른 것이 바로 이점이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헨리 VII세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영국교회를 세우고 라틴어로 된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으나 라틴어 찬송가를 대신할 만한 그들의 찬송가를 마련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창작한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칼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직 다윗의 시편 운율역으로 된 것만 부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독일의 경우는 달랐다. 독일의 개혁교회는 자기나라 말로 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찬송가는 바로 대중화되어 종교개혁의 정신이나 30년전쟁의 참상과 뉘우침, 18세기 경건주의자들의 신비주의, 그리고 모라비아 교도들의 해외선교와 모든 신앙활동을 노래로서 나타낸 것이다. 종교 개혁을 단행한 루터는 모든 회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코랄(Chorale)을 탄생시켰으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는 성직자와 일정한 성가대원만 부를 수 있었던 찬송가를 신도들이 예배드릴 때 다함께 부르게 된 것이다.

1524년에는 개혁교회를 위한 찬송가가 요한 빌터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계속해서 많은 수정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편집물 가운데 루터 자신이 정리하고 수정한 것이 최소한 36개 정도는 되며 이들 가운데 5개는 루터 자신의 작품이다. 1천5백51개의 곡중에 78개가 독일 노래이며, 47개가 라틴 노래인데 이것은⁴⁾ 루터가 광신적인 그의 동료들과는 달리 로마교회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독일 코랄은 그 형식에 있어 주로 그레고리 성가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사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공동예배에 필요한 노래 가사를 운문시로서 정리한 것이다.

가사의 내용으로서는 미사의 통용문에 상당하는 것과 고유문의 기초가 되는 시편이다. 그리고 가사의 형태면에 있어 운문시를 구성하는데는 당연히 두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말수가 제한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히 시편에 있어서 의역하는 일이었다. 후자의 경향은 두절이상되는 가사의 절수가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가사의 내용면에 있어 자유로운 신앙의 표현과 개인적 신앙의 노래를 창작할 수 있게

4) David P. Appleyard, *교회음악사*, 박태준 역, P. 128.

했을 뿐 아니라, 공동예배를 위한 노래와 생활속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에로의 길도 열게 하였다.

독일코랄의 곡조는 4분음표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얼핏들으면 무미한 것처럼 들리기 쉬우나 무게있고 깊이있는 전통적 독일음악이다. 한프레이즈마다 페르마타가 있어, 그 음악의 깊이를 알게하며 동시에 숨을 쉬어 정신적으로 가다듬는 여유를 갖게 하는게 그 특징이다. 이외에도 루터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요와 비예전 찬송가들을 수집하여 개작하여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후 루터를 중심으로 하여 코랄이 공동예배의 회중 참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작된 의의는 매우 크며, 그 속에서 우리는 만인 사제론의 실현의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우수했던 이 시대의 독일 찬송가는 18세기 요한 웨슬레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갈 때 모라비아 교도들로부터 입수하여 번역하기 전까지는 영국에 전래되지 못했다. 웨슬레를 시작으로 독일 찬송가를 영어로 번역하여 개신교의 회중들이 부르도록 한 사람들은, 영국 국교도인 콕스(Francis Elizabeth Cox)와 장로교파의 보르윅(Jane Borthwick) 그리고 사라 펠드라터(Sare Erick Findlater)인데 그들은 1854년에 Hymns From the Land of Luther라는 찬송가집을 발행하여 영국과 미국에 널리 보급하였다. 그 외에 다음은 우리나라 현행 찬송가에 실려 있는 것이다.

〈표 2〉

우리나라 찬송가	용 도	제 목
개편 37장	통상미사	“주기도”(루터의역)
개편 128장	예배	죽음을 당하신 주(코랄)
개편 344장	시편	내주는 강한성이요(루터)

〈표 2〉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루터의 작품으로 그의 찬송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교의 개혁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혁시대의 찬송가들은 새로운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으며,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원리를 깨닫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음악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것이다. 〈악보 1〉는 루터의 불후의 코랄 “내주는 강한성이요”(개 344)이다.

② 루터이후부터 16세기 말까지

루터가 1546년 세상을 떠난후 16세기말까지는 그가 생전에 남긴 공헌으로 새로운 찬송가가 흐르는 물처럼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루터의 작품과 비슷한 객관적이고 성서적인 작품이 계속하여 창작되었으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경향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악보 1〉 내주는 강한 성이요

Ein feste Burg

“Der XXXVI Psalm”

Luther, c. 1529

Luther, c. 1529

Ein' fest - e Burg ist un - ser Gatt, Ein' gute Wehr'
Er hilft uns frei aus al - ler Noth, Die uns jetzt

— und Waf - - - fen. Der alt' böse Feind,—
hat be - trof - - - fen.

— Mit Ernst er's jetzt meint, Gross' Macht und viel List,

Stein grau-sam Rüstung ist, Auf Erd' ist nicht sein's Gleich - en.

이 시대의 찬송가 작가는 아래와 같다.

(가) 니콜라우스 데시우스(Nicolaus Decius, 1490~1541)

니콜라우스 데시우스는 수도원장이었으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개혁교회로 개종, 목사가 되었다. 그의 작품중 찬송가 외에도 일반미사 가운데 Sanctus, Gloria, Agnus Dei와 같은 독일어로 된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오늘날도 널리 불리우고 있다.

(나) 세발트 헤이텐(Sebald Heyden, 1494~1561)

독일 개신교 목사로 그의 작품이 그라이테르(Greitter)의 곡 가운데 실렸는데 바하가 이 곡을 「마태수난곡」 제 1부의 끝부분에 합창과 오르간 코랄 전주곡으로 편곡했다.

(다) 발레리우스 헤르베르거(Valerius Herberger, 1562~1627)

루터파 교회의 목사로 목회를 하며 창작하였다. 그 외에도 이 시대에 활동한 작가는 Justus Jonas(1493~1555), Paul Eber(1511~1569), Paul Speratus(1484~1551)등이 있다. 이 시대의 작곡가들 역시 대부분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16세기말

16세기말의 코랄은 회중들이 화성이 없는 단선율만 부르는 관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루터는 교회 성가대의 오르간 사용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 드릴 때 화성 합창으로 된 코랄을 부르도록 권장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단선율이 아닌 합창을 위한 화성 코랄집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루터파 교회의 회중 찬송은 좀처럼 보급되지 않고 있다가 16세기말에 이르러서야 겨우 회중들이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의 회중들은 무반주로 코랄을 제창(unison)하였는데, 성가대가 있을 경우에는 테너 성부가 회중과 함께 멜로디를 부르고 그 이외의 성부는 다성적으로 처리한 대위선율을 불렀다. 그러나가 주선율이 소프라노로 옮겨졌으며 그것은 16세기말(1586) 독일의 뉴렌베르크에서 루카스(Osiander Lukas)가 편집한 코랄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때에 교회에서는 주로 오르간을 독주악기로 사용했을 뿐 찬송가를 반주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시대의 코랄의 특색은 중세 전통의 교회선법에 의한 박력과 감성이 적은 전음계적 멜로디였다. 종교개혁 이후 반세기동안 독일에서는 200가지에 이르는 코랄집이 출판되었는데 이 전성기를 “코랄 황금시대”라고 한다.

④ 30년 전쟁(시대의 독일 찬송가)

17세기 전반기에 독일은 비참한 전쟁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의 30년 전쟁은 단순한 독일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기독교와 서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독일에서는 개신교와 로마카톨릭 사이에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때 보헤미아 영주가 개신교 교도들을 탄압하여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 그러던 중 잠시 국민들의 반란이 진압되었으나 루터교를 국교로 하고 있던 덴마크의 왕이 독일 개신교 제후들과 관계를 맺고 신도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전쟁에 개입한 것이 또 다시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개입한 덴마크 군대는 얼마 안되어 패전하여 전쟁이 끝나는 것 같았으나, 이번에는 스웨덴과 프랑스가 참전하여 각지의 제후들과의 이해관계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이것이 독일의 황폐하고 불행한 종교전쟁이다.

이러한 불행한 전쟁은 1648년에 웨스트 팔리아에서 프랑스군의 승리로 체결된 평화 조약(Peace of West Phalia)으로 끝나게 된다. 이 전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좀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반면에 루터파와 칼빈파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30년 전쟁 동안도 찬송가들은 만들어졌으며 이 시대의 작가들은 아래와 같다.

(가) 마루틴 립칸트(Martin Rinkant, 1568~1649)

색소니주 아일랜드부르크에서 출생한 목사로 많은 산문과 시를 남겼으며 통일 찬

송가 20장에 그의 작품 “다 감사 드리세”가 수록되어 있다.

(나) 요한 리스트(Johann Rist, 1607~1667)

함부르크 근교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다. 그의 작품은 약 680개가 남아 있다.

(다) 폴 게르하르트(Paul Gerhardt, 1607~1676)

게르하르트는 그 당시 가장 이름 높은 찬송가 작가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최고의 종교 시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이다. 그는 종교 개혁의 발상지 비텐베르크에서 출생했으며 그가 태어난 다음해에 30년 전쟁이 일어났다. 그의 작품은 통일 찬송가 18장에 “내 영혼아 곧 깨어”라는 제목으로 한편만 수록되어 있으나, 개편 찬송가에는 36, 103, 408장이 그리고 새 찬송가에는 17장과 55장이 수록되어 있다.

⑤ 경건주의

독일은 30년 전쟁의 비참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주관적인 그들의 신앙체험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점점 신앙적·종교적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경건주의로 발산된 것이다. 이 경건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큰 종교운동으로 파급되었다.

1690년부터 1730년에 걸쳐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루터시대에 그토록 열심히 부르던 회중들의 찬송가도 점점 식어져 가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 조차 형식적이 되고 말았으며 물론 그에 따라 신앙심도 생명을 상실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 스페너(Philip J. Spener, 1635~1705)가 일으킨 개혁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다. 스페너는 회중들의 신앙적 갈등과 위기를 절감하고 내적인 신앙심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케 하는 개혁을 전개한 것이다. 이 시대의 찬송가 작가는 아래와 같다.

(가) 카니츠(Friedrich Rudolf Canitz, 1654~1699)

베를린 태생으로 스페너에게 감화를 받아 경건주의 운동에 가담하였으며 24편의 찬송가시를 썼다. 그 가운데 “오 내 영혼아”가 유명하며 그것은 통일 찬송가 25장에 수록되어 있다. 이 찬송가는 그의 신앙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특별히 그가 애송하던 곡이다.

(나) 로디가스트(Samuel Rodigast, 1649~1724)

예나 근교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베를린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바쳤다.

(다) 슈몰크(Benjamin Schmolck, 1672~1680)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라이프찌히 대학에 다닐 때 경건주의파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찬송가 작품에는 그 영향이 현저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통일 찬송가 250장과 431장에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라) 네안더(Joachim Neander, 1650~1737)

20세 때 운데아이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경건주의를 따라 그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했다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경건주의 찬송가 작가외에도 작가들이 많으나 여기에서 줄이기로 한다.

⑥ 후기독일코랄

17세기 이후 반세기를 “코랄의 황금시대”라고 한다. 종교개혁시대의 전통적이고 객관적이던 코랄의 뒤를 이어 경건주의 시대에는 내성적인 찬송가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시대에 발행된 「경건한 서정시의 실용적 곡집」(Praxis Pietatis Melica)은 1736년대까지 무려 44판을 출판하여 17세기 이후의 모든 코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이 시대의 유명한 작가들이다.

(가) 그루거(John Gruger, 1598~1662)

위에 언급된 「경건한 서정시의 실용적 곡집」의 작가로 1622년부터 1640년 사이에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며 회중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 한편 작곡도 많이 했다. 그의 작품은 초기 코랄보다는 좀 더 서정적이고 독창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의 작품중 다 감사드리세(20장)와 주는 귀한 보배(452장)가 우리나라 통일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다.

(나) Hausen(Johann Freyling Hausen, 1670~1739)

그루거의 후계자라 할 수 있으며 루터파 신학자요 경건주의 지도자였던 프랑케 헤르만(Franke, August Hermann)의 협력자로 활약하면서 「재미있는 노래책」(Geistreiches Gesang buch, 1704)이라는 성가집을 발행했는데 그 성가집은 그 당시에 할례시를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자들의 대표적 찬송가였다.

이 시대에는 또 북유럽을 중심으로 오르간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17세기 중엽부터는 회중들의 노래에 반주로 오르간이 사용되었다. 사무엘 샤이트(Scheidt, Samuel, 1585~1654)와 같은 교회음악 작곡가는 코랄선율을 정선율로 삼아 오르간곡을 많이 작곡했다.

이것이 곧 오르간 코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전주(연주)하는 오르간 전주곡으로 발달한 것이다. 또 이때에는 코랄을 주제로 한 합창곡도 많이 작곡되어 예배 전주로써 그날 예배 제목의 성구를 음악적으로 해석하는 독창, 중창, 합창 등과 같은 교회음악 칸타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오르간 음악과 교회음악 칸타타가 발전하는 절정기에 세계적인 독일 프로테스탄트 음악의 최고봉인 바하(Johann Sebastian Bach : 1685~1750)가 나타났다. 비록 바하는 많은 코랄을 작곡하지는 않았으나 그 가운데서 그의 코랄을 교회 칸타타나 수난곡

동에 적절하게 편곡하여 삽입했으며 그 밖에 많은 곡들로 공동예배에 헌정 봉사하였고 오르간을 위한 편곡도 명실상부 최고의 수준으로써 그의 작품은 오늘날 독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⑦ 모라비아 찬송가

후스파(Hussites) 혹은 보헤미아 형제단(Bohemian Brotheren)이라 불리는 모라비안들은 존 후스(John Huss)의 추종자들인데, 1415년의 후스 화형후 모라비아 계곡으로 피신했으나 핍박을 심하게 당했으며, 그 핍박은 30년 전쟁이후에도 계속되어 그들은 지하조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비아파들은 그리스도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독일의 색슨(Saxony)지방으로 널리 퍼져서 살다가 귀족 출신인 쭈젠토프(Nikolaus Ludwig Zinzendorf, 1700~1760)를 만나 그와 함께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쭈젠토프는 경건주의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종교적으로 핍박당하는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자기의 영지를 나눠 주고 그곳에 “주님이 지키신다”(Herrn hut)라는 마을을 건설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라비아 형제단, 혹은 헤른 후르파라고 부르게 되었고 쭈젠토프는 그곳에 이상촌을 세우려 했으나 결국은 실패했다. “시재”라고 불리우는 쭈젠토프는 2천편이상의 찬송시를 남겼으며 그의 작품들은 그의 경건주의 신앙과 열렬한 전도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⑧ 18세기 후반 찬송가

18세기에는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성행하였는데, 이때에 독일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계몽주의는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합리주의로 발전, 모든 것을 합리주의로 해결하였다. 이것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철학,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몽주의는 기독교를 철학과 같은 단순한 것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런 상황을 기회로 유럽의 전제 군주들은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계몽주의가 경건주의보다 뒤늦게 발달하였으나 18세기 후반부터는 계몽주의 사상이 널리 퍼져 프로이센(preussen)의 프리드리히 대왕과 오스트리아의 요셉 II 세(Joseph II)등은 계몽주의적 전제군주가 되었다.

시대적 상황은 찬송가 창작을 뜻하게 만들어 이 시대에는 찬송가 창작 활동이 침체되었고 문예계는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찬송가의 창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이때 생겨난 찬송가에서도 그 시대적 사상인 계몽주의적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작가는 겔레트(Christan Gellert, 1715~1769)와 빌헬름(Johann Wilhelm, 1789~1855)이 있다.

독일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18세기에는 교회 찬송가의 무대가 영어권으로 옮아가게 된다.

(2) 영국 찬송가

영국 교회의 개혁 운동은 스스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먼저 일어나고 뒤늦게 그 영향이 전달된 것이다. 개혁사상과 더불어, 음악도 다소 영향을 받긴 했으나 독일이 민족적 음악의 방향으로 흐른 것처럼 영국 역시 영국적인 특징을 지니며 발전되었다.

영국 찬송가 역시 그 근간에 있어서는 그레고리 성가의 형태가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형성된다. 영국도 초기에는 시편을 현대식으로 편시하여 노래하기 적합하게 만들어 교회 예배에 사용하였다.⁵⁾

영국에 있어 종교개혁은 독일이나 유럽지역에서처럼 활기있는 것이 못되었다. 극히 부분적이고 지역적이어서, 유럽에서는 이미 개혁이 끝난 1540년대에도 별 진전이 없었다. 특히 영국은 왕가나 귀족의 세력이 강하였고 귀족간에도 의견들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왕이 바뀔 때마다 종교가 영향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의 의식적이고 회중적인 음악 대신에 두 종류의 신교 음악이 강조되었다. 첫째는 영국 교회의 신교 음악으로 로마 교회의 음악과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둘째는 평민의 신교음악 즉, 이미 설립된 교회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 국교도들의 음악이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비국교도들이 오늘날의 음악에 중요한 종교음악의 유산을 남겼으며 그들은 루터보다는 칼빈의 신학에서 더 많은 영향을 입었다.

다음은 뚜렷하게 나뉘는 영국 찬송가의 발전과정을 표로 분류한 것이다.

〈표 3〉

구 분	년 도	특 징
제 1 기	1550~1650 (개혁이 상류한 시기)	찬송가 발생기 주로 시편가가 중심
제 2 기	1650~1780	교리적, 교훈적 찬송
제 3 기	1780~1850	전도적, 복음적 찬송
제 4 기	1850~현재	경험적이고 경건한 시

① 제 1 기(1550~1650)

이 시기는 개화기로 찬송가의 작가들은 영국 국교회안에도 있고 또한 그 이외의 교

5) McNair, 「찬송가 소사」, p. 71

회 안에도 있었다. 이 시기는 시편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를 섬긴 Thomas Sternhold가 1549년에 만든 시편가가 가장 오래된 찬송가이며 그가 죽은 후 그의 친구 John Hopkins가 보충하여 1551년에 출판하였다. 영국교회가 이를 채택하여 “Sternhold and Hopkins Psalter”라고 부르고 정식 찬미가로 제정하였는데 그 수는 불과 37편이었다. 그후 Hopkins는 더 많은 시편을 편시하여, 1562년에는 76편의 시편찬송을 출판하였다.⁶⁾

1553년에 메리여왕이 즉위하자, 구교를 회복하려고 신교도를 박해하였다. 그래서 신교도들은 대륙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일부는 제네바로 또 일부는 프랑크푸르트로 흘어졌다. 그중 제네바의 Calvin에게로 간 사람이 특히 많았으며 거기서 그들은 교단을 만들었다. 이때 스코틀랜드로 건너간 존 낙스도 그런 사람중의 하나였다.⁷⁾

엘리자벳 여왕때 제네바에서 들어온 시편가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져 런던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자 1562년에 시편 150편 전부를 편시하여 편찬했다(The Whole Book of Psalms). 이 책은 존홉킨즈와 그외의 여러사람이 함께 출판하였으며 존 데이가 쉬운 곡조로 편찬했고 1년 후에는 다시 존데이가 4성부로 화성을 붙여서 재 출판했고, 이 화성은 토마스 탈리스, 리차드 브립, 윌리암 파손즈, 토마스 코스톤, 에드워드 헤이크 등에 의해 붙여졌다. 아마도 이 책이 영국에서는 최초로 4성부의 화성이 붙여진 책일 것이다. 1579년에는 윌리엄 데이먼(William Damon)이 또 다른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의 화성은 더 포용성이 있고 구조면에서 매우 단순하다.

또 1591년에는 데이먼이 테너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성부에 선율을 둔 새로운 책을 출판했으며 이보다 6년전인 1585년에 존코신(John Cosyn)은 데이가 발행한 노래와 함께 60개의 노래를 편찬했는데 이 노래들은 5성부, 6성부로 편곡되었다.

또 다른 중요한 찬송가는 토마스 에스테(Thomas Este)가 1592년에 발행한 시편집(Psalter)으로, 이 책은 4성부로 되어 있고 존 도우랜드, 에드몽 블랭크스, 에드문드 후퍼, 존 파머, 리차드 엘리슨, 죠 지커비, 윌리암 코볼드, 웨드워드 존슨, 그리고 길레스 카르나비 등의 중요한 작품을 싣고 있다. 이들은 당시의 영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찬송작곡가들이며, 그후 1599년에는 보다 훌륭한 찬송가가 리차드 엘리슨에 의해 출판되었다. 그것은 노래부르며 루트 오파리온, 시테른, 혹은 베이스 비올 등과 같은 악기로 하나하나씩 연주하거나 합주로 하였다.

가장 결정적인 작품은 ‘시편전집, 복음적인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많은 작곡가에 의해 작곡되고 도(Tho)에 의해 수정되고 중보된 4성부의 노래들을 가진 라벤스크로프트편집’이란 책이다. 이 유명한 책은 4성부로 편곡된 독일, 프랑스, 영국의 노래를 싣고 있으며 탈리스(Tallis), 도우랜드(Dowland), 몰리(Morley), 베넷(Bennet), 스툴스(Stubbs), 파르나비(Farnaby) 그리고 라벤스 크로프트(Ravenscroft) 자신외에도 14명의

6) 김경선, op. cit., p. 243.

7) McNair, op. cit., p. 71

중요한 당대 음악가들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다시금 멜로디는 테너 성부에 주어졌으며 베이스와 테너는 1:1의 음으로 움직이나, 소프라노와 엘토는 화성처리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중은 테너를 노래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화성을 불일 때 그 음악적 효과는 매우 만족스럽게 인상적이었다. 라벤스크로프트가 출판한 책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는 존 도우랜드의 시편 100편이다.

라벤스크로프트의 시편가 이후에 얼마동안은 그 같은 높은 수준의 영국 찬송은 나오지 못했다.

1623년 조지위더(George Wither)가 「교회의 찬송가(The Hymns and Songs of the Church)」를 간행하여, 성서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의역의 가사와 교회력에 따른 특별한 날을 위한 노래를 발표하였다. 그 가사를 위한 곡을 준비하는데는 기본스가 협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찬송가는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고 있다.

같은 시대에 국교회의 사제였던 조지 허버트가 송영의 내용을 지닌 찬송가를 창작하였고 실학원으로 유명한 존 밀턴이 시편가(136편에 의한 의역)를 남기고 있다. 또 「천로역정」의 작가로 유명한 존 번연도 밀턴과 마찬가지로 자유교회에서 채용하고 있는 찬송가를 몇편 남긴바 있다. 그 중에는 20세기의 대음악가 본 윌리엄스에 의해 재발견된 것도 있으며 개편 564장은 번연의 작품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제 1 기의 유명한 작가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George Wither(1588~1667)

교회찬송가 간행. 성서를 바탕으로 한 의역의 가사와 교회력에 따른 찬송 발표.

(나) George Herbert(1593~1632)

후에 John Wesley가 인정할 만큼 훌륭한 작가이다. 영국 국교회 목사.

(다) John Milton(1608~1674)

독립교회에 속하는 시인, “실학원의 작가로 시편을 주제로 많은 찬송가를 남겼다.

(라) John Bunyan(1628~1688)

천로역정의 작가로 유명하여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새 찬송가 364장(개 564) “담 대히 역경을 이기는 자”가 그의 작품이다.

② 제 2 기(1650~1780)

이 시기의 찬송은 교리적이며 교훈적인 것이 전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시편가의 성숙기로 신역시편가가 나와 이윽고 새로운 찬송가의 개화기를 맞이하는 때였다.

17세기말 토마스 켄(Thomas Ken, 1637~1711) 주교가 영국교회에서 힘찬 활약을 하고 있었으며 국교회의 주교로 로마교회에 대한 저항등에 적극적이었다. 그가 지은 찬송가는 영어권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불려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송영이며,

4행으로 된 영어가사의 명작으로 그 가사는 아래과 같다.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

Praise Him above, ye heavenly host :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Amen.

이 가사는 우리나라 찬송가 580장(개, 만복 근원주 하나님)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네바의 시편가에서 발생되었고, 구역 시편가 100편의 곡(Old Hundredth)로서, 이 또한 명곡과 결부되어 애창되고 있다. 그는 또 원체스터 학교 생활을 위해 편집한 「기도수첩」 속에다 하루의 생활중 아침, 낮, 저녁을 위한 찬송가도 준비했는데, 그 중 밤의 찬송이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다. (개 50, “이밤도 찬송드리자”)

영국 찬송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삭 왓츠(Isaac Watts : 1674~1748)이다. 왓츠의 영국 찬송에 대한 관계는 암브로즈와 라틴 찬송, 마로와 프랑스 찬송, 그리고 루터와 독일찬송의 관계와 같다. 이삭 왓츠는 대중 예배에 찬송을 도입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영국에서는 아직도 예배에 찬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혹은 교회를 떠나 노래가 없는 예배 모임을 갖는 이들도 있었으며 개혁 교회에서는 주로 시편가가 회중찬송으로 불리워졌다. 그러나 17세기 말경부터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점차 허용되었고, 왓츠의 찬송도 초기에는 계속 시련을 겪으며 30~40년동안을 배척받았다. 심지어 그의 찬송가를 채택한 교회가 이단교회로 간주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의 찬송은 오랫동안 오직 비국교도 교회에서만 불려졌다. 이렇게 처음에는 배척을 당하던 그의 찬송은 후에는 그의 찬송외에는 다른 찬송이 불려지지 않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 그는 1707년에 14편의 시편이 포함되어 있는 「찬송가와 영의 노래」(Hymns and Spiritual Songs)를 간행하였고, 그뒤 병석에 누운 몸이면서 1719년에는 다시금 새로운 노래집을 간행하였다. 「다윗의 시편-(단) 신약성서의 말씀에 의하여 모방하고 크리스천의 상황과 예배에 적용되는 것-(The Psalms of David Imitated in the language of the New Testament and Applied to the christian's state and Worship)」이라는 제목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16, 7세기의 회중가로서의 코랄과 시편가를 기초로 하여 맺은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왓츠는 약 600편에 이르는 찬송가를 창작했는데, 그것 자체로도 그가 “영어 찬송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다. 그의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수는 대략 20여편에 이른다. 그중 영어권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예부터 도움되시고(개 71), 주달려 죽은 십자가(개 123), 햇빛을 받는 곳마다(개 206), 웬말인가 날 위하여(개 121, 122) 등이다. “예부터 도움되시고”는 윌리엄 크리프트가 작곡한 것으로 그가 최초에 오르가니스트로 근무한 성 안나 교회 이름과 같은 “성 안

나(St. Anne)"란 곡명으로 알려졌으며 영어 찬송가중 명곡으로 꼽히고 있다. 이것은 또 독일의 대 바하가 좋아하여 이것으로 "전주곡과 후주곡 내림마장조"를 작곡하였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오늘날 붙여져 있는 곡은 로웰 메이슨이 1824년 작곡한 것으로 1옥타브반의 음역에서 멋지게 작곡된 선율은 회중용곡의 표준이 될 만하다.

같은 자유교회(회중파) 목사로 워츠를 계승한 것은 필립 도드리지(Philip D. D. Doddridge, 1702~51)이다. 그러나 그는 50세도 못되 폐결핵으로 쓰러져 생애를 마쳤는데, "주의 말씀 받은 그날"(개 249)를 비롯하여 많이 불리우는 찬송가를 남겼다. (개 76, 373, 585, 새 568, 합 426)

제 2기에 주로 활동한 작가들은 아래와 같다.

(가) Thomas Ken(1637~1711)

국교회 목사로 로마 교회에 대항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다. 새 찬송가 1장(개 580, 합 1) "만복의 균원 하나님"의 가사가 그의 작품이다.

(나) Isaac Watts(1674~1748)

자유교회목사, 세계개혁교회 찬송가의 원조라고 불릴만큼 위대한 작가이다. 찬송가에 123장(개 85, 합 111)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비롯 13편이나 들어있다. 그의 시는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심미적이며 진지하다. 찬송시외에도 많은 저서가 있다.

(다) Phillip Doddridge(1702~1751)

비국교회목사, 찬송시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으나 Watts나 Wesley같은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새 찬송가에는 578장, 한편이 수록되어 있다.

(라) Joseph Addison(1672~1719)

영국의 정치가, 국회의원, 국무장관을 지냈다. 새 찬송가에 99장(개 20, 합 14). "저 높고 푸른 하늘" 한 편이 수록되었다.

(마) 그외의 작가들

Richard Bayter(1615~1691)

: 아름다운 찬송시 많이 남김, 종교서적도 168권이나 저술하였다.

John Cennick(1718~1755)

Huntingdon Selina(1707~1791)

Thomas Oliver(1725~1799)

Augustus Toplady(1740~1778)

: 개편 324, 248에 그의 작품 수록되어 있다.

John Fawcett(1739~1817)

〈악보 2〉는 영국 찬송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Isaac Watts의 찬송가 우리 함께 즐거운 노래 하세(Chester Field)로 작곡은 Thomas Hawells가 하였다.

〈악보 2〉

Issac Watts

Thomas Hawels

Isaac Watts

우리 함께 즐거운 노래하세 (Chesterfield)

Thomas Hawels

1. Come, let us join our cheer - ful
 2. "Wor - thy the Lamb that died," they
 3. Let all that dwell a - bove the

songs With an - gels round the throne;
 cry, "To be ex - alt - ed thus;"
 sky, And air, and earth, and seas,

Ten thou - sand thou - sand are their
 "Wor - thy the Lamb," our lips re
 Con - spire to lift Thy glo - ries

tongues, But all their joys are one.
 ply, "For He was slain for us."
 high, And speak Thine end - less praisel

③ 제 3 기(1780~1850)

제 3 기 역시 제 2 기에 이어서 찬송가의 개화기로 제 2 기가 자유교회의 위초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는 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신양부흥운동을 일으킨 웨슬리 형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 3 기 찬송가의 특징은 전도적이고

복음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 형태이다.

영어의 “찬송가 작가중 제일인자”로 일컬어지는 작가는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이다. 그는 그의 형 존 웨슬리와 더불어 한평생 국교회에 소속되어 형에게 협력하여 메소디스트 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신앙과 생활 부흥운동에 몸바쳤다. 그런 가운데서 6500편 이상에 이르는 수많으면서도 동시에 내용도 풍부한 찬송가를 창작한 것이다.

그 중에는 성찬식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 적지 않게 많아서, 어느 연구자에 따르면 166편의 성찬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1절 짜리에서 22절에 이르는 것까지 있다. 찰스의 찬송가는 우리나라 찬송가집에도 23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온갖 종류의 찬송가에 모두 수록되어 있는 불후의 명작도 10곡 이상에 이른다(개 360, 139, 79, 297, 144, 94, 174, 134, 430, 431, 148, 149, 469, 173, 18, 220, 새 473, 606, 386, 270 등). 형인 존 웨슬리는 창작보다는 전젠크로프와 테르시테겐의 것을 영어로 번역한 찬송가 두 편을 찾아볼 수 있다(개 408, 457).

웨일즈의 워츠라 일컬어지며 웨슬리 형제와 마찬가지로 신앙부흥운동을 목표한 윌리엄 윌리엄스(William Williams)와 그외에 영국국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칼빈 신학과 웨슬리의 신앙부흥운동에 공명하여 좋은 찬송가를 남긴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가) Edward Perronet(1726~1792)

개편 찬송가 31장에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나) John Newton(1725~1807)

280여편의 찬송가 남김. 개 253, 200, 166, 474, 59, 합 236.

(다) William Cowper(1731~1800)

존 뉴튼의 조수였으며 영국시인중 제1인자에 꼽힌다. 개 428, 251, 새 34, 87 등이 그의 작품이다.

다음 <악보 3>은 제3기 찬송가의 개화기에 수많은(6500편) 작품을 창작하여 신앙부흥운동을 일으킨 Charles Wesley의 작품으로 작곡자는 Simeon B. Marsh이다.

④ 제 4 기(1850~현재)

영어 찬송가는 19세기에 이르러 가사면에서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곡조면에서 그 결실기라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결실기의 막을 연 것이 존 키블(John Keble : 1792~1866)이다.

그는 시골의 작은 교구의 사제를 거친 뒤 옥스포드 대학에서 시학 교수가 되었다. 또 옥스포드 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한데 「교회력 찬송 - 1년을 통하여 주일과 특별한 축제일을 위한 시에 의한 사색(The Christian Years, Thoughts in Verse for the Sundays and holy Days throughout the year)」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사실상 기도서에 동반하

〈악보 3〉

Charles Wesley

Simeon B. Marsh

풍우대작 할 때와

MARTYN. 7. 7. 7. 7. D.
(First Tune)

CHARLES WESLEY, 1707-1788
In moderate time

SIMEON B. MARSH, 1798-1875

1. Je - sus, Lov - er of my soul, Let me to Thy bos - om fly,
 2. Oth - er ref - uge have I none; Hangsmy help - less soul on Thee;
 3. Thou, O Christ, art all I want; More than all in Thee I find;
 4. Plen-teous grace with Thee is found, Grace to cov - er all my sin;

While the near - er wa - ters roll, While the tem - pest still is high;
 Leave, ah, leave me not a - lone, Still sup - port and com - fort me.
 Raise the fall - en, cheer the saint, Heal the sick, and lead the blind.
 Let the heal - ing streams a-bound; Make and keep me pure with - in.

Hide me, O my Sav - iour, hide, Till the storm of life is past;
 All my trust on Thee is stayed, All my help from Thee I bring;
 Just and ho - ly is Thy Name, I am all un - right - eous - ness;
 Thou of life the Foun - tain art, Free - ly let me take of Thee;

Safe in - to the ha - venguide, O re - ceive my soul at last.
 Cov - er my de - fense-less head With the shad - ow of Thy wing.
 False and full of sin I am, Thou art full of truth and grace.
 Spring Thou up with - in my heart, Rise to all e - ter - ni - ty. A - MEN.

는 시에 의한 안내서가 되었다. 이외에 그는 예배, 기도생활, 성서에 관한 찬송시도 남기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 찬송가에 4편이 소개되고 있다(개 43, 49, 새 103, 성 260).

레지널드 히버(Reginald D. D. Heber, 1783~1826)가 기도서의 교회력에 따르는 찬

송가집이 없는 것을 안스럽게 여겨 월터 스코트 경 등 시인의 협력을 얻어 찬송가집을 편찬했으나 런던주교의 시기상조라는 반대로 그가 죽은 뒤까지 발행되지 못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거룩 거룩 거룩”(개 1)이 있으며 이외에도 7편이 우리 찬송가집에 수록되어 있다(개 519, 100, 524, 552, 389, 성 103, 196).

그 무렵의 찬송가 작가로는 헨리 H. 밀먼, 제임스 몽고메리, 로버트 그랜트, 샤로트 엘리어트, 존 바우링, 토머스 무어, 헨리 F 라이트, 존 헨리 뉴먼, 프레드릭 W 페이버, 매뉴 브리지스 등이 있다.

특히 이 시대의 존 메이슨 널은 예배학의 연구로 그리스와 라틴의 옛 자료를 발견하고 번역하여 소개하는가 하면, 찬송가 역사면에서도 역시 고대 교회의 유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찬송가 역사면에서도 역시 고대 교회의 유산을 소개한 업적으로 찬송가 역사속에 크나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는 “이날도 저물었네”(개 56), “구주 예수 넓은 은혜”(개 474), “주 부활하신 날에”(개 138)등이 그의 소개에 의한 것이다.

찬송가 곡조에 관한 재검토와 새로운 시도는 프라세스 하버갈의 오빠 윌리엄 H. 하버갈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1847년에 “The old church Psalmody”를 간행한 것이 그것이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쇠퇴기에 있던 영국교회 음악계에 다시금 활력을 넣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릴프 본 윌리엄즈가 일반 음악계에서도 활약하면서 “English Hymnal” 1906년판의 음악 편집을 맡아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즉, 옛 민요의 연구를 하고 또한 회중가로서도 격조 높은 찬송가집을 편찬하였다. 그로 인해 종래에 곡조가 음악적으로 문제되던 찬송가 가사가 새로운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래는 제4기에 활동하던 작가들이다.

(가) Sarah Flower Adams(1805~1848)

창세기 28장에 기존된 “야곱의 사다리”에 바탕을 둔 유명한 “내주를 가까이 함”을 쓴 여성 작가(개 502).

(나) Cecil Frances Alexander(1818~1895)

어린이 찬송가를 편집한 여성 작가

(다) William Walsham How(1823~1897)

런던 빈민을 위한 주교였던 작가

(라) John Ellerton(1826~1893)

찬송가 연구에 큰 공헌을 한 작가.

(마) John Ernest Bode(1816~1874)

자기집 어린이의 견신례를 계기로 멋진 노래를 남진 작가.

(바) Samuel John Stone(1839~1900)

교회 본직에 관한 신학 논쟁에 기인하여 사도신경에 바탕을 둔 열 두편의 찬송가를 제작한 작가

(사) Frances Ridley Havergal(1836~1879)

Elizabeth Cecilia Doubles Clephane(1830~1869)

본 논문에 실린 작가외에도 제 1 기부터 제 4 기에 이르는 영국 찬송가에 기여한 작가들은 수없이 많으며, 몇만편에 이를지 알 수 없을 정도인 이들의 수많은 찬송시는 오늘날 전세계 신교회에 영향을 남겼다.

(3) 스위스 찬송가

독일에서 마루틴 루터가(M. Luther, 1483~1546) 주도하던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지도하는 신학 사상을 주축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 여기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찬송가인 “시편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칼빈은 본래는 프랑스 북부지방 노윤(Noyon)에서 태어났으며 법률을 공부한 후 빠리에서 다시 신학을 연구하여 1533년에 성령의 감화를 받고 복음주의자로 전향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복음주의자 칼빈은 극심한 박해를 받게되 견딜수 없어 결국은 스위스·바젤로 망명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그의 독특한 신학체계를 형성, 유럽에서는 개혁파로 그후에 영국에서는 장로회파로 불리는 복음주의 개혁교회를 조직하여 청교도(puritan)들의 사상적 중심을 형성하며 마침내 미국 기독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칼빈의 방대하고 깊은 신학에 관해서는 여기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겠지만, 칼빈 신학의 핵심은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지상권에 대하여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교의 중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의 예정설”이다. 그리하여 칼빈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비성서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배제하는 한편, 예배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식을 채택하여 거기에 알맞는 찬송가를 창작하는 일을 했다.

칼빈에 의하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적절한 찬송가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창작된 찬송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도 구약성서에 있는 150(1편부터~150편)편의 시편들만이 찬송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칼빈이 이러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암시를 받은 것은 그가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에 망명하고 있을 때 독일 루터파 교회에서 회중들이 힘차게 코랄을 부르는 것을 듣고부터이며 독일의 코랄에 감명을 받아 자신이 인도하는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찬송가로 부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루터 교회처럼 칼빈도 라틴어로 된 찬송가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언어인 프랑스어로 시편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바라던 대로 자기의 손에는 프랑스어로 된 시편

이나 가사와 곡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우선 프랑스어로 된 운율시편을 번역하여 그의 주위에 있는 시인들과 신학자들, 음악가들의 힘을 빌어서 프랑스어로 운율시편을 번역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시편의 운율역으로, Metrical Version(of the Psalm) 혹은 운율시편(Metrical Psalm)이라고 부른다. 칼빈은 스위스 바젤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그의 신학체계를 집대성하여 수립한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6)를 출판했으며, 그후 잠시 빠리로 돌아가서 길로메(Farel, Guillaume, 1489~1565)와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으나 그 운동이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1538년에 추방되어 스트拉斯부르크에서 그곳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각지의 종교 개혁자들과 사귀며 칼빈주의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

칼빈의 최초의 시편가집은 스트拉斯부르크에서 발행한 「Aulcuns Pseaumes et cantiques」(음악을 위한 시편과 노래)인데, 여기에는 칼빈이 번역한 것이 네편, 마로가 번역한 것이 열두편, 이외에 두편을 합해서 열여덟편의 시편과, 성서에 의한 찬송가(Canticle)세편을 합해 모두 스물 한편이 실려있다. 그리고 「스트拉斯부르크 시편가」(Strasbourg Psalter)는 칼빈 자신이 시편 36편을 운율화한 것인데, 이것은 2세기 동안이나 널리 불려진 시편가 초기의 것으로 대단히 귀중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작곡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525년에 발행한 루터교 코랄집에 시편 36편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위해 수록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스트拉斯부르크 성당의 독창자였고 음악가였던 그라이터(Matthaus Greiter)가 작곡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통일 찬송가에 있는 “이름의 소망 무엇인가” 539장은 복음성가로써 신학적인 면에서 칼빈주의 색채를 지닌 대표적인 찬송가이다. 그후 칼빈은 제네바에서 1541년에 또 하나의 시편가집을 발간했으며 시인 마로(Clement Marot)와 음악가 브르즈(Louis Bourgeois)가 칼빈과 함께 일했다. 이후에는 모든 시편가가 제네바에서 발간되었다. 1542년에 제네바에서 발행한 최초의 시편가집에는 시편가 서른 아홉편이 실렸는데, 그 가운데 「시몬의 노래」가 수록되었으며 이전에 있던 열일곱곡과 나머지 스물 두곡 가운데 열세곡은 새로운 곡이거나 편곡한 것 들이다.

이렇게 제네바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시편가들은 중보판을 거듭하다 20년 후인 1562년 완성되었다. 칼빈이 직접 지도하던 시편가집은 그후에도 계속 출판되어 약 100년 사이에 170가지나 출판되었으며, 특히 제네바 시편가는 20개 국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으니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했음을 보여준다. 칼빈 1542년 제정한 새로운 예배 순서에는 시편가를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559년에는 프랑스 개혁파 교회에서도 예배에 출석하는 회중들은 시편가집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여 그후 약 2세기 동안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시편가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4) 네덜란드 찬송가

네덜란드 교회는 칼빈의 개혁 정신을 따르며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칼빈은 그의 신학에서도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생각도 철저하였다. 즉 찬송은 오직 성서에 기록된 시편뿐, 다른것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시편으로 시작하나 곧 자유스런 주제를 잡아 자유시를 선택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만은 개혁을 이룬지 5세기가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시편가만을 고집하고 있다. 또 그 곡조는 옛날 시편을 노래하던 낭창(Chanting)식이다. 대개의 교회가 찬송시에 악기의 반주를 하지 않고 있으며 찬송의 가락은 2분음표가 주를 이룬다.

오늘날 코랄과 비슷한 곡을 만들어 새로 책을 출판하여⁸⁾ 몇몇 큰 교회에서 사용하는 예가 있으나, 대부분이 옛날식의 낭창을 사용하고 있다. 또 별도로 일반 자유시—즉 시편을 떠나 자유로이 쓰여진 시로된 찬송가도 출판되어⁹⁾ 있으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형태와는 매우 다르다. 대부분의 곡조가 박자와 마디 표시가 없으므로 이것을 회중이 제창하자면 자연히 서로 음이 맞지 않고 뒤죽박죽 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고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식으로 찬송하던 것과 흡사한 방법이다. 제네바 시편가는 본래 한 음절에 한음이 붙여졌던 것이며¹⁰⁾ 줄줄끌어 낭송하는 것이다. 속되게 표현한다면 노래하는 사람은 아무 재미도 느낄 수 없으며 별 감동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즉 곡조에서 오는 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 리듬이나 박자가 대개의 한국 찬송가나 다른 나라의 그것처럼 율동적이거나 서정적이 아니다.

(5) 미국 찬송가

미국 교회의 찬송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보다 더 늦게 시작된다.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이주한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은 거의 전부가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시편가였으며 전부가 곡조가 없는 것이었다. 즉 악보가 없는 문자만 있는 노래책이었다.¹¹⁾ 미국 초기 개척교회들은 모두 영국에서 가져온 이런 시편가를 이용하였고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서를 주어 기록하게 하신 것 외에 어떤 다른 찬송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심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¹²⁾

많은 개척자들이 건너간 1600년대 청교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미국교회는 출발 당시부터 영국에서 이미 분열된 여러교파들이 상륙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교파로 출발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서적 출판의 난점도 있고 또 이미 출판된 책도 많지 않아,

8) Psalmen, Koonigare, (Boeken-Centrum, Grarenhage, 네덜란드), 이 책은 1773년에 편집된 것으로 네덜란드 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발행은 최근에 하였으나 년도 명시 없음.

9) Liedboek, Voor de Kerken, 491 Gezangen, 11 Koor-En Orge Luitgave (Boeken-Centrum, Graven Hage), 이 책은 1973년에 발행됐으며, 491곡으로 되어있다.

10) Appley, op. cit., pp. 80f.

11) 김경선, op. cit., p. 477.

12) Ibid.

초기에 사용된 찬송가는 “제네바 시편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용된 Ainsworth 시편가가 원문과 거리가 멀고 빠진것이 많다는 불만이 많아, 1640년에 새로 “Bay Psalm Book”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실제 이름은 “영어 운율로 충실히 번역된 전시편가집” 이었다. 이 책이 미국 식민지에서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이다.

그후 뒤늦게 상륙한 1700년대의 개척인들이 가져온 Isaac Watts의 찬송가가 침체해 있던 시편가 상태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고, 여러교파가 경쟁적으로 자유스런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 물론 일부 보수층의 반대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런 반대자들로 인하여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1762년에는 Bay Psalm Book이 27판을 내게 되었고 동시에 Isaac Watts의 찬송도 병행하여 출판되었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던 미국의 찬송가는 1800년대에는 Moody의 부흥운동이나 복음주의 운동과 더불어 한층 더 자유스런 평민적 · 서민적 표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Gospel Hymn이었다. 물론 지식층의 교도들에 의하여 견지되어 경건사상은 성서를 떠난 자유시에 대하여 반발하였는데 그것은 가사의 표현이 너무 대중적이고 음악도 낮은 수준으로 단순하고 너무 경박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호응을 받은 미국의 찬송가는 계속 복음송적 경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찬송가는 한마디로 대중적 노래이다. 이러한 흐름이 옳은가 아닌가 하는 것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우나 미국은 세계 여러나라의 찬송가와는 또 전혀 다른 미국적인 즉 대중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룬 것이다.

동양의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이 미국 찬송가의 영향을 받았다. 아래에 미국 찬송가에 공헌한 작가들과 대표적 찬송가를 함께 소개한다.

〈표 4〉

작가이름	년대	작품
Timothy Dwight	1752~1817	새찬송가 523장(개 196, 198, 합 524) “내주의 나라와”
John Newton	1725~1807	새찬 618장(개 200, 합 465), “시온성과 같은 교회”
Sylvanus Dryden Phelps	1816~1895	새찬 457장(개 416, 합 453), “성자의 귀한몸”
Edward Hopper	1816~1888	새찬 359장(개 323, 합 359), “예수 인도 하소서”
Elizabeth Pason Prentiss	(1818~1878)	새찬 409장(개 471, 합 396),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George Duffield JR	1818~1888	새찬 329장(개 390, 합 462), “십자가 군병들아”
Jeremiah Eames Rarkin	1828~1904	새찬 515장(개 515, 합 301),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Joseph Henry Gilmore	1834~1918	새찬 488장(개 332, 합 469), “예수가 거느리시니”
Annie Sherwood Hawks	(1835~1918)	새찬 448장(개 455, 합 432), “주음성 외에는”
Mary Artemisia Lathbury	(1841~1913)	새찬 563장(개 191, 합 520), “구주여 해변서 떠듬 이를”

작가이름	년대	작품
Bishop Phillips Brooks	(1835~1893)	새찬 130장(개 102, 합 99), “오 벤레헴 작은 고을”
Maltbie Davenport Badcock	(1858~1901)	새찬 100장(개 74, 합 65), “참 아름다워라”
Henry Van Dyke	(1852~1933)	개편 찬송가 19장, “기뻐하며 경배하라”
Fanny Jane Crosby	(1920~1915)	새찬 272장(개 260, 합 185), “인애하신 구세주여”
Francis Ridley Havergal	(1836~1879)	새찬 230장(개 412, 합 180), “내 너를 위하여”
Robert Lowery	1826~1899	새찬 448장(개 455, 합 432), “주 음성 외에는”
Washington Gladden	1836~1918	새찬 357장(개 375, 합 351), “겸손히 주를 섬길때”
George Frederick Root	1820~1895	새찬 261장(개 548, 합 221),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William Orcutt Cushing	1823~1902	새찬 444장(개 429, 합 422), “주날개 밀 내가 편히 거하네”
Philip Paul Bliss	1838~1876	새찬 219장(개 189, 합 170), “달고 오묘한 그 말씀”
Eliza Edmunds Hewitt	1851~1920	새찬 440장(개 445, 합 427), “예수 더 알기 원함은”
Charles Hutchison Gabriel	1856~1932	새찬 449장, “주 예수 내맘에 들어와 계신후”
Lelia Naylor Morris	1862~1929	새찬 648장, “나 어느날 꿈속을 헤매며” 작사·자작곡
Thomas Obediah Chisholm	1866~1960	새찬송가 306장, “오신실 하신주”
C. Austin Miles	1868~1946	새찬 490장(개 450, 합 480), “저 장미꽃 위에 이슬”
Henry Hallam Tweedy	1868~1953	
George Bennard	1873~1958	

13)

이 외에도 더 많은 찬송가의 공로자들이 오늘날 미국 찬송가의 결실을 보게 했으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 찬송가에 실린 찬송 작가 중심으로 모아 보았다.

(6) 일본 및 중국 찬송가

일본과 중국 교회 회중·찬송가도 한국교회 찬송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일본이나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선국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국 찬송가이며 한국 찬송가와 공통된 것들이 많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 일본인이나 중국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이 한국의 것과 같이 일시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룩되고 형성되어 많은 분량이 이미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13) 김의작, 교회음악학, p. 132.

1931년에 발행된 일본 “찬송가”서문에 보면, 메이지 36년에(1902) 일본인의 작품에 대하여 운운하고 있으니, 이것은 약 80년전의 일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80년전에 벌써 일본인의 작품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¹⁴⁾ 1924년에 발행된 일본 찬송가 “고금 성가집”에는 일본인의 작사가 전체 530장 중에 133장이나 들어있다. 이것이 60년전의 일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교회는 일본인 자신들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 부르고 있다.

중국의 찬송가도 일본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 아래에 악보를 보면(악보 4) 이것은 1700년대에 중국인 오어선의 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세기전의 일이다. 중국 찬송가 “보천송찬”에는 중국인의 시가 44편 들어 있다. 위의 사실들은 일본이나 중국들이 한국보다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대주의 혹은 안일 무사주의 태도에서 오는 무관심에서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의식의 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악보 4〉

仰 止 歌 崇 教：聖十

*LORD, BEFORE ALL TIME THOU WAST

吳承山詞，一六三一至一七一八
同聲，翻奏爲曲

聖誕 (YÜN TAN)
7. 7. 7. D

洪志林譜寫
真言平譜，一九二〇

朱蓋開天始問基，高懸利世始移期。

一人血注五僞盡，萬國心懷十字奇。

開國有梯通漢蕩，妖魔無垢逞迷離。

行肩好附耶酥後，仰止山崩步步隨。(阿門。)

14) Idem, p. 164.

2. 한국교회 음악사

(1) 기독교 음악의 전래와 그 배경

지역적으로 한국은 동양중에서도 극동에 위치하여 기독교 발상지인 팔레스타인과는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복음 뿐리내리기에는 악조건이었으며, 지역적 악조건 외에도 불교문화권, 유교 문화권이었던 한국은 대원군의 쇄국정책(1820~1989)으로 더욱 복음이 들어오기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전국신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에 대한 외경심이 두터운 민족이며 또 민족의 역사속에 음악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기독교가 들어온 1880년대는 교회의식이나 찬송가, 성경등이 모두 중국을 통해 들어왔으며 1880년대 국권이 기울어질 무렵과 한일합방(1910) 전후에 찬송가는 애국운동에까지 그 뜻을 담당하였고, 또 일제 36년 동안은 민족적 울분을 토로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에 전래된 교회음악은 우리나라에 서약음악을 보급하는 역할까지도 하였으므로 그 의의가 더욱 깊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1880년 당시는 찬송가를 중국의 것을 개략적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892년 감리교의 존스(George Herber Jones)와 로드 와일러(Louise C. Rothweiler)공편으로 악보도 없는 수형본의 찬미가(27곡)가 출판된 것이 최초의 찬송가이다.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춘 찬송가는 1893년 장로교의 언더우드(H. G. Underwood : 1859~1916)박사가 만든 4성으로 된 찬미가 117곡이 처음이며 1885년경부터는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악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서울에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평양에 숭실학교 등을 통하여 합창운동이 가열되면서 성가곡의 보급이 활기를 띠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찬성시」로서 1895년에 리(G. Lee)와 기포트 부인(Mrs. M. H. Gifford)의 공편으로 총 54곡이고 이 찬송가는 북부 장로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아래표는 그 이후에 사용된 찬송가들이다.

〈표 5〉

년 도	찬 송 가
1900	침례교회 복음찬미가
1903	성공회의 성회송가
1904	천도찬사
1905	찬미가
1908	장감연합찬송가
1911	성결교의 복음가
〃	안식교의 찬미가
1912	구세군의 구세군가
1918	장감연합 합동찬송가
1919	신정복음가

년 도	찬 송 가
1925	천주교의 조선미성가
1928	신정찬송가
1928	신편찬송가
1930	부홍성가
1949	합동찬송가
1962	새찬송가
1968	개편찬송가

앞에서 언급한 사실들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찬송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은 잡힐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음은 시대적 구분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2) 초창기의 찬송가(1800~1910)

초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무렵에는 중국어 찬송가를 번역하여 (한문을 우리말로 직역) 불렀으며 영어 찬송도 단편적으로 번역되어 사용되었다고 한다. 1880년대의 3종류의 찬송가 출판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구 분	년 도	작 품 수	
찬 미 가	1892	27곡	초판
	1895	81	재
	1899	176	3
	1902	205	5
찬 양 가	1894	117	초
	1895	154	재
	1900	182	3
찬 성 시	1895	54	초
	1898	83	재
	1900	87	3

위 표를 살펴보면 초창기(1880~1900)에 교회인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찬미가의 경우 재판이 3년만에 곡의 수가 초판의 3배로 증가되었고 그 다음 4년동안에 3판의 곡수는 재판의 곡수보다 배나 늘었다. 5판의 곡수는 초판의 7배가 넘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신도수의 증가와 찬송의 발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당시의 국민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임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고백이기도 했고 또 울분을 삭히는 호소이기도 하였다.

1880년대를 기점으로 여러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음악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때의 찬송가는 가사나 내용, 구성에 있어 체계적인 것은 못되었으나 교회와 한국 음악 분야에서 동시에 개척자적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 당시의 선교사들은 전도와 교육으로 국민정신(신생활운동) 계몽에 전념하였으며 1885년 아펜젤러(H. G. Appenzller, 1858~1902)는 배재학당을, 1886년에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W. B. Scranton : 1856~1922)은 이화학당을 각각 세워 찬송가를 가지고 창가라는 이름으로 음악교육을 하였으니 이것이 현대 서양음악을 학교에서 가르친 시초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찬송가는 계속적으로 두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결과적으로는 서양악기의 보급, 서양식 군악대 창설, 음악교과서 출판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887년 새문안 장로교회, 정동 감리교회(1887)의 설립으로 음악을 더욱 보급되었고, 1903년에는 원산과, 1906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후에는 국문이 점점 더 기울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에 의지하며 신앙생활과 민족운동을 병행했고 한국교회음악의 시작인 찬송가는 그 당시 역사적 굴곡속에서 신앙심을 북돋우는데 그치지 않고 서양음악의 도입과 신문화 운동의 모체가 되었으며 나아가 애국운동에까지 불을 붙이는 역할까지도 하였다.

이렇듯 찬송가는 점점 민족의 심령속에 파고들어갔고 마침내는 현실 참여에까지 발전되는데 그것은 찬송가 곡조에 애국적 가사를 붙여 부르는 일, 군가의 성격을 띠는 찬송가(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또 그밖에 절제, 금주, 금연 등의 내용을 붙이는 것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현실참여의 찬송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악보 5〉 애국적 찬송가

1. 놓호신 상쥬님 주비론 송중님 풍물히보쇼 서 이 누 르
2. 우리 의 뒤 조류 짜하만세 만만세 만 세 로 다 복되신

이 창을 지켜주 용시고 오주여 이 누 르 보우호 쇼 서
오늘은 은혜를 네리고 만 수 우강세 호야주 쇼 서

악보 5의 곡은 1896년 음력 7월 25일의 고종황제 탄신일을 맞아 서울 새문안 교회에서 축하예배를 보았는데 이곡을 축가로 지어불렀다고도 한다. 또 이곡은 1950년 발행합동 찬송가 468장이기도하여 영국국가이기도 하다.¹⁵⁾

다음 〈표 6〉은 19세기말 주로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들의 곡목을 일부 소개하는 것이며, 〈표7〉은 찬송가들의 작시자의 국적을 분석한 것이고, 이어서 〈표 8〉은 1910년경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찬송가로 오늘날까지도 사용하는 찬송가의 목록이다.

〈표 6〉 19세기말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

번호	찬송가 초행가사	찬송가 번호	원 작 사	작 시 년 도	국적
1	A charge to keep I have	69	Charley Wesley (1707~1788)	1762	英
2	Alas and did my Saviour	19	Isaac Watts (1674~1748)	1707	〃
3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No. 1	28	Edward Perronett (1726~1792)	1779	〃
4	Am I a soilder of the cross	55	Isacc Watts	1724	〃
5	Another sixdays' work is done	5	Joseph Stennett (1663~1713)	1732	〃
6	Anywhere with Jesus	63	Cecil Frances Alexander (1823~1895)	1860	〃
7	Asleep in Jesus! blessed sleep	76	Margaret Mackay (1862~1887)	1854	〃
8	Before Jehovah's awful throne	10	Isaac Watts	1719	〃
9	Blest be the tie that binds	71	John Fawcett (1739~1817)	1782	〃
10	Chief of sinners though I be	37	William McComb (1793~ ?)	1864	〃

15)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1976), p. 39.

<표 6> 19세기말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

번호	찬송가 초행가사	찬송가 번호	원 작 사	작 시 년 도	국적
11	Christ the Lord is risen today	25	Charles Wesley	1739	英
12	Come, Holy Ghost, in love	13	Ray Palmer (1908~1887)	1858	〃
13	Come, Holy Sprit, Heavenly dove	12	Isaac Watts	1707	〃
14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54	Robert Robinson (1735~1790)	1758	〃
15	Come, ye sinners, poor and needy	34	John Newton (1725~1807)	1778	〃
16	Come, ye sinners, poor and needy(with chorus)	35	John Newton	1778	〃
17	Depth of mercy ! Can there be	38	Charles Wesley	1740	〃
18	Far, far I have wondered	41	William McDonald (1820~1901)	1871	美
19	From all that dwell below the skies	6	Isaac Watts	1719	英
20	From Greenland's icy mountans	73	Reginald Heber (1783~1826)	1819	〃
21	God loved a world of sinners lost	47	M. M. Stockton (1821~1885)	1871	美
22	God without beginning	2	The one hundredth Psalm		
23	Gloria Patri	81	George Walker (1783~1868)	1866	英

<표 6> 19세기말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

번호	찬송가 초행가사	찬송가 번호	원 작 사	작 시 년 도	국적
24	Guideme, O Thou Great Jehovah	56	William Williams (1617~1791)	1745	영
25	He died for me	23	John Newton	1779	〃
26	He leadeth me oh blessed thought	61	Joseph Gilmore (1834~1919)	1862	미
27	Holy Ghost, with light divine	14	Andrew Reed (1787~1862)	1817	영
28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4	Reginald Heber	1826	〃
29	How sweet the name of Jesus sounds	30	John Newton	1774	〃
30	I am so glad that our Father in heaven	48	Philip bliss (1838~1874)	1874	미
31	I am thine, Oh Lord	70	Fanny Crosby (1820~1915)	1875	〃
32	I gave my life for thee	20	Frances R. Havergal (1836~1879)	1858	〃
33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40	Horatius Bonar (1808~1889)	1846	〃
34	I lay my sins on Jesus	52	〃	1843	〃
35	I love thy kingdom, Lord	9	Timothy Dwight (1752~1817)	1800	〃
36	I love thy temple	8			〃
37	I love to tell the story	67	Katherine Hankey (1834~1911)	1870	영

<표 6> 19세기말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

번호	찬송가 초행가사	찬송가 번호	원 작 사	작시년도	국적
38	Jesus, lover of my soul	45	Charles Wesley	1740	英
39	Jesus, lead my by thy power	62	William Williams	1772	夕
40	Jesus loves me ! This I know	46	Anna Warner (1820~1915)	1859	美
41	Jesus shall reign where'er the sun	28	Isaac Watts	1719	英
42	Jesus, thine all victorious blood	75	Charles Wesley	1740	夕
43	Jesus, thy name I heard and lived	53	A Native Korean	1886- 1895	韓
44	Jesus, thy name I love	31	James G. Deck (1802~ ?)	1842	英
45	Jesus ! where'er thy people meet	59	William Cowper (1731~1800)	1769	夕
46	Joy to the world ! the Lord is come	16	Isaac Watts	1719	夕
47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no. 1.	36	Charlotte Elliott (1789~1871)	1840	夕
48	Leaving the world	74	Mrs. Baird (創作歌)	1886- 1895	夕
49	Lord, dismiss us with thy blessing	7	John fawcett	1773	夕
50	Lord Jesus, I long to be perfectly whole	39	James Nicholson	1874	美

<표 6> 19세기말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

번호	찬송가 초행가사	찬송가 번호	원 작 사	작 시 년 도	국적
51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	51	Charles Wesley	1747	英
52	More love to thee, O Christ	50	Elizabeth Pretiss (1818~1878)	1869	美
53	My Father is rich in Houses and lands	64			
54	My Jesus, I love thee	32	Anon.	1864	英
55	My soul, be on thy guard	68	George Heath (1850~1822)	1781	〃
56	Nearer, my God to thee	57	Sarah F. Adams (1805~1848)	1841	〃
57	O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60	Philip Doddridge (1702~1751)	1735	〃
58	Oh for a thousand tonguse to sing	3	Charles Wesley	1739	〃
59	Our Lord came down	33	Mrs. Barid (創作歌)	1886- 1895	〃
60	Pass me not, O gentle Saviour	43	Fanny Crosby	1868	美
61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1	Thomas Ken (1637~1711)	1709	英
62	Rock of ages, cleft for me	44	Augustus Toplady (1740~1770)	1776	〃
63	Saviour, like a sheerd lead us	65	Dorothy Thrupp (1779~1847)	1836	〃
64	Silent night, hallowed night	15	Joseph Mohr (1792~1848)	1818 T. 1865	獨

<표 6> 19세기말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

번호	찬송가 초행가사	찬송가 번호	원 작 사	작 시 년 도	국적
65	Sun of my soul, thou Saviour dear	26	John Keble (1792~1866)	1820	英
66	Sound the high praises	11	A native Korean	1886-1895	韓
67	Tell me the old, story	66	Katherine Hankey	1866	英
68	The Lord is risen indeed	24	Thomas Kelly (1769~1854)	1802	夕
69	The Lord will provide	72	白 鴻 俊	1886-1892	韓
70	The sins of man are many	42	A Native Korean	1886 - 1895	夕
71	The whole world was lost in the darkness of sin	29	Philip Bliss	1875	美
72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17	William Cowper	1771	英
73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with chorus)	18	William Cowper	1771	夕
74	There is a happy land	79	Andrew Young (1807~1889)	1838	夕
75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58	Frederick W. Faber (1814~1863)	1854	英
76	We shall live forever	78			
77	We know not when Jesus will come	80	P. P. Bliss	1874	美
78	We shall meet beyond the river	77	John Atkinson (1835~ ?)	1867	夕

〈표 6〉 19세기말 사용되던 초대 찬미가

번호	찬송가 초행가사	찬송가 번호	원 작 사	작 시 년 도	국적
79	What can wash away my sins ?	22	Robert Lowry (1826~1869)	1877	〃
80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21	Isaac Watts	1707	英
81	Wounderful story of love	49			

16)

〈표 7〉 초대 찬송가의 시분석

년도	종 류	곡수	국 소
1895	찬미가	81	영국 54, 미국 15, 한국 4, 독일 1, 시편 1, 창작가(선교사) 2, 미상 4
1894	찬양가 (초판)	117	영국 79, 미 23, 한국 9, 시편 1, 미상 4, 주기도문 1
1898	찬성시	83	영국 33, 미국 22, 한국 1, 독일 1, 일본 1, 시편 14, 이사야 2, 창작 2, 미상 7

17)

〈표 8〉 1910년경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찬송가(숫자는 장수)

1910찬송가	새찬송가	합동찬송가	개편찬송가	곡 목
5장	5장	5장	8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6	6	6	60	복의 근원
7	7	7	2	전능왕 오셔서
8	8	8	173	만민이 내게 있으면
22	51	33	40	지난밤 보호하사
95	307	259	318	아버지여 나의 맘을
98	546	525		예수의 전한복음
104	275	225	232	죄짐을 지은 사람은
136	245	186		기쁜일이 있어
137	224	187	262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49	358	162	502	내 주를 가까이
150	443	418	168	죄짐 말은 우리 구주
157	441	423	500	저 좋은 낙원 이르니
166	448	432	455	주 음성의에는
252	527	505	497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16) 이유선(1977), pp. 121~36.

17) Ibid., pp. 136~137.

(3) 일제시대의 찬송가

1910년 이후의 찬송가의 발자취, 즉 이 시대의 찬송가 특징을 말한다면 말세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의 압박과 그에 대한 서러움은 찬송가에도 표출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찬송가는 신앙적으로는 찬송가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대신하는 비가이기도 하였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군가대신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일제는 드디어 1940년부터 찬송가를 검열하기에 이르렀으며 금지곡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가사를 수정토록 강요하기도 하여 찬송가 수난시대이기도 하였다. 금지된 곡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고 그 밖에 가사의 수정을 강요받은 것은 전능왕 오셔서, “만왕의 왕 내주께서” 등인데 이런 곡들은 “왕”이라는 가사가 문제가 된 것들이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과 억제속에서도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찬송가와 교회음악은 여러분야에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였다. 1919년(대정 8년) 성결교의 동양선교회 출판 중신 복음가를 보면 총 211곡이 실려있는데 여기에는 작사·작곡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중 3곡(51, 52, 125장)은 곡조가 없었으며 나머지 208곡은 1절만 기재되고 나머지 절은 분류기재되었다.

(4) 해방후의 찬송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조국의 복음화를 기원하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한 성경, 한 찬송으로 전도하여야겠다는 생각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세교단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여온 찬송가를 한데 모아 하나로 만들기로 동의하여 세 찬송가 가운데 특이한 것은 무조건 수록하고 공통된 것은 하나만을 선택해 넣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1949년에 합동찬송가를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해방의 감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민족적 요청이요, 기독교인들의 대화합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1956년에는 찬송가 위원회가 초교파적으로 조직되었고, 1963년에는 그 개편작업에着手, 1967년에 완성을 보았다. 한편, 예장 합동측은 1960년에 새찬송가를 발행하여 결국 개신교측에서는 합동찬송가, 개편찬송가, 새찬송가 등을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각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는 기구가 세계교회협의회(W. C. C.)측이거나 혹은 교회 협의회(N. C. C.)측이거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5) 한국 찬송가의 문제점

초창기 찬송가는 전래초기이므로 한국 찬송가의 문제점들은 해방 이후부터 논하려 한다. 해방후의 한국 찬송가는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첫째는 개편 찬송가 속에 한국인의 작사, 작곡으로 된 찬송가 27편이 실려 있으나 이들 중 10곡 정도만이 애송되고 있다는 것, 둘째는 각종 찬송가마다 그 분량이 크게 늘어나고 그 가사가 구구하게 다르므로 찬송가 일치 운동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번째 문제점은 찬송가와 복음가, 부흥가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구분 못하는데서 오는 혼동으로

이 세가지가 잘못 선택되 불리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제점은 우리 자신들의 정서에 맞는, 즉 구체적으로 말해서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찬송가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이 문제점이 짧은 시일안에 고쳐지거나 이루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으나 아무쪼록 하루속히 의식있는 종교인이나 종교음악인들에 의해 찬송가는 찬송가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민족의 신앙적, 공통심을 담은 우리의 주체적 찬송가가 작시·작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민족에게 맞는 또 우리 민족 특유의 찬송가는 좀더 장기적 계획 아래 체계적인 양적·질적 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서두에서 살펴본 서양 여러나라 찬송가, 또 우리나라에 전래된 찬송가들에 이어 많지 않은 수지만 찬송가에 실린 한국인 작품을 검토하려 한다. 다음 <표 9>는 한국인 작사·작곡의 찬송가를 분석한 표이다.

<표 9>

년도	종류	곡수	작사·작곡
1931	찬송가	314장	창작가사 6편, 대표적 가사(남궁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한국인 작곡은 하나도 없다.
1935	신편찬송가	400	창작가사 1편(325장) 작곡은 없다.
1949	합동찬송가	586	창작가사 5편(195, 205, 363, 459, 486) 한국인 작곡(임배세)
1962	새찬송가	671	창작가사 2편(243, 161) 작곡 없다.
1967	개편찬송가 은혜의찬송	600 52	창작가사 25편, 한국인 작곡 25곡(2편은 번역) 창작가사 20곡, 창작곡 18곡(무명)

찬송가에 한국인 작품이 처음 수록된 것은 1893년 언더우드 박사가 만든 찬미가 초판 <117편>에 8편이 실렸는데 작시자는 밝혀져 있지 않고 다만 백홍준의 1편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목록은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쥬가 구호네 옷과 밥을 주시고 빙흔거슬 다 주네”이다. 또 1917년 조선 음악 연구회를 조직한 초기(1880) 선교사중에 J. S. Gale은 누구보다도 한국적 찬송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으로 그는 1919년 한일합방까지 한국적 찬송가를 위해 조선음악 연구회에서 계속 활동하였다.

그후 한참 동안은 한국적 찬송가의 보급은 눈에 띄는 것이 없으며 1967년 12월 25일 개편 찬송이 펴내질 때 한국인 찬송가가 많이 용모되었으나 27곡만이 채택되었다. 애초에 한국인 찬송을 넣기로 한 의도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생활과 신앙적 체험에 맞는 찬

송을 듣기 위한 것이었으나 불행하게도(10곡) 몇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양식 찬송이 주류를 이루었다.

오늘날 찬송가 통일 운동이 극에 이르러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며 나아가 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새롭고 주체적인 한국 찬송가가 혜아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II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중찬송은 카톨릭에서 분리된 독일의 신교회운동을 중심으로 전 유럽에 퍼져 나갔다. 시대와 문화 또는 민족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온 찬송가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여러가지로 변형, 발전되어 나라마다 각각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형성되어 자리잡게 된 것이다.

(1) 세계 교회 음악사

독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이후 독일어로 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그들 특유의 코랄로 발전시켰으며 이것은 세계 여러나라의 교회음악에 여러형태로 영향을 주었다. 영국은 역사의 여러 시련을 거치며 다교파로 분열되어 독일보다 찬송가 형성 시기가 다소 늦어졌으나 자신들 문화와 정서를 합축한 시편 중심의 찬송가를 왓초나, 웨슬리 그밖의 찬송작가들에 의해 발전 시켰다.

스위스는 칼빈을 주축으로 하여 시편 중심의 찬송가를 발전시켰으나 그들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비성서적 요소를 과감히 배제했고 예배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식을 채택 하였으며 그것에 합당한 찬송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개혁 정신도 역시 루터의 독일 코랄에서 암시받고 감명받은 것이다. 네덜란드 역시 칼빈의 개혁 정신에 따른 시편 찬송가를 사용하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시키거나, 자유시를 사용치 않고 오직 시편 찬송가만을 고집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는 대조를 이루며 곡조도 옛날 시편을 노래하던 낭창식으로 오늘날까지도 부르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의 나라보다 늦게 형성된 미국 찬송가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으므로 당연히 그 초기에는 영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므로 초기 찬송가는 시편 찬송가가 그 주류를 이루지만 곧 자신들의 성향에 맞게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복음송적 찬송가, 영가등을 발전시켰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한국은 거의 여과없이 받아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한국 교회 음악

한국 찬송가는 개신교가 들어온 1880년대에 중국의 것을 개략적으로 번역 사용하기

시작하여, 악보없는 찬송가, 언더우드 박사의 악보가 결들여진 4성 찬송가, 그후에 1949년 합동찬송가, 1967년의 개편찬송가 등 일제시대, 해방을 맞이하며 여러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특히 1967년 개편 찬송가에는 한국인이 창작한 곡이 27편이 실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여러나라들의 몇만편에 이르는 그들 고유의 찬송가 수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수임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긴 종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 우리의 찬송가 현실을 비교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무리가 따르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월등히 그들이 작시, 작곡한 찬송가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한번 한국적 찬송가의 필요성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서술된 세계 여러나라의 찬송가에 대한 고찰도 이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하여졌다. 앞으로 이땅의 종교인 종교음악인, 종교음악 학도들은 다같이 한국적 찬송가, 나아가 한국적 교회음악을 추구하는데 있어, 시대적 상황을 소극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을 길러야 할 것이며, 그 힘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된 구체적 해결 방법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Appleby, P. David, History of church Music, 미파사, 서울, 1974.
2. Apel, Willi, Harvard Dictionary of Music, 2nd ed. Harvard Univ. Press, London, 1970.
3. Biezen, Jayvan, Lied Voek Voor de Kerken 491 Gezangen Boekencentrum's Gravenhage, 1973.
4. Grout, Donald Jay, A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양음악사, 서유석 · 문호근 역) 수문당, 서울, 1977.
5. Julian, John, Dictionary of Hymnology, Kregel Publications, London, 1907.
6. Monroe, Theodore, 찬미가 물어(개정판) 경성사, 동경, 1938.
7. Salle, James, A History of evangelistic Hymnology, (복음적 찬송의 역사, 에덴문화사) 서울, 1970.
8. Squire, Russel, Church Music, St. Louis Missour, (교회음악사, 이귀자 역), 호산나음악사, 서울, 1990.
9. Wagenaar, Joh, Paslmen (Enige Gezargen) Kooruitgave Boekencentrum b. v. s. — Gravenhage, in de Berijming van 1773.
10. 강신우, 찬송가의 올바른 이해, 기독교음악사, 서울, 1980.
11. 김경선, 찬송가학, 대한기독교출판사, 서울, 1980.
12. _____, 찬송가의 배경과 유래, 신앙애사, 서울, 1975.
13. _____, 찬송가 해설, 신앙애사, 서울, 1978.
14. 김두완, 기독교음악,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서울, 1984.
15. 김의작, 교회음악학, 총신대출판부, 서울, 1981.
16. _____, 교회음악사, 세계문화사, 서울, 1980.
17. 김정희, 한국교회음악의 발전상,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서울, 1980.
18. 대한기독교서회(편), 합동찬송가, 서울, 1949.
19. 박창근, 교회음악의 한국적 특색,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단국), 1979.
20. 생명의 말씀사(편), 새찬송가, 서울, 1962.
21. 이유선, 한국양아백년사, 중앙대학출판국, 서울, 1976.
22.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총신대출판부, 서울, 1977.
23. 이종태, 한국교회음악사(개신교편), 예찬사, 서울, 1992.
24. 주정식, 교회음악발달사, 호산나음악사, 서울, 1990.
25. 한국찬송가위원회(편), 개편찬송가, 서울, 1968.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Song of Praise"

As a part of the religious service, song of praise is musical expression of reverence and deep devotion. Along with prayer and the Bible, song of prais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religious life and also takes essential position in sacred music.

The history of Song of praise begins with the Protestant Reformation in 16th century. After the Reformation, the development of song of praise was expedited by the chorale prepared under the active supervision of Martin Luther and the Psalms by John Calvin, and eventually flourished in 18th Century English Hymn. The Reformation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Protestantism. Since then the public was allowed into the service and musical performance, secular songs were introduced in the liturgy, and above all, it was possible to use their own language in song of praise instead of Latin lyrics they have been using. Aside from this historical aspect, in reality most of the song of praise we sing how were made after the Reformation or rearranged according to the translation done at that time.

Protestantism seceded from Catholicism since the Reformation was disseminated all over Europe without organized system or rules. Therefore each country developed its own way of doing—they combined song tunes and suitable lyrics according to their needs. This is why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nowadays : German Chorale, English Hymn, Swiss Psalm, Netherlands Psalmody, American Gospel and other Asian countries like china, Japan and Korea influenced mainly by America.

Compare to the European countries, the history of Protestantism and church music is relatively short. Church music was first introduced to us about 100 years ago and Korean church music began with the publication of Hymn without music score in 1829 by the Methodist church. Despite of its short history, Korean church music prospered not only as itself but also as a part of Korean western music and served as a monument in our cultural and art history. But the lack of Korean traits and originality in church music puts it in infancy. That is why we have to do our best endeavor to achieve better result in church music of Korea.